

모기 사라졌는데... 때아닌 '곤충과의 전쟁'

폭염 영향 광주 모기 채집 지난해보다 20% 가량 줄어 여름 불청객 파리·나방 줄고 개미·거미·말벌 등 활개

광주시 북구 망월동에 사는 박모(46)씨는 올 여름 때아닌 '개미와 전쟁'을 치르느라 진땀을 쏟았다.

박씨는 "이달 초 갑자기 개미 수백마리가 거실 소파 밑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잡아도 잡아도 숫자가 더 늘어났다. 이웃 주민도 개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면서 "마트에서 각종 개미살충제를 구입해 집안 곳곳에 뿌리고, 뿌리고는 반복한 끝에 겨우 개미를 없앴다"고 말했다.

박씨는 "개미가 떼지어 다니며 몸 이곳저곳을 뚫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하다"면서 "폭염 탓인지 올 여름은 모기와 파리가 거의 없어 좀 편히 보내는 게 했더니, 더 무서운 개미떼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시 남구에 사는 서모(여·27)씨는 올 여름 갑자기 집 안팎을 점령한 거미 때

문에 폭염에도 창문까지 꼭꼭 닫고 지내야 했다.

서씨는 "지난달부터 갑자기 거미들이 방충망에 붙어 있거나 집에도 들어오는 바람에 놀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구멍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미는 해충이 아닌 곤충(益蟲)이라 방역이 힘들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올 여름 광주·전남에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와 파리, 나방 등은 줄어든 반면 개미, 거미가 기승을 부리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광주에 설치된 모기 포집기에서 969마리의 모기를 채집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채집한 1194마리에 비해 18.8%(225마리) 감

소한 수치다. 특히 집 모기의 경우 올해 같은 기간 856마리가 채집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잡힌 1097마리에 비해 21.9%(241마리)나 줄었다.

변온동물(變溫動物·주변 기온에 따라 체온이 바뀌는 동물)인 모기는 27도 안팎의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올 여름처럼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 흡혈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여름잠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육교 질병관리본부 연구관은 "올 들어 파리로 줄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파리는 모기와 달리 주로 동물의 배설물에 번식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자랄 수 있어 모기처럼 폭염 등과 연관짓기는 어렵다. 앞으로 폭염과 파리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기, 파리와 함께 여름철 대표 불청객으로 꼽히는 나방도 개체수가 확연히 줄었다. 그나마 날아다니는 나방들도 폭염 등의 영향으로 성장을 제대로 못한 탓에 크기가 예년보다 작아진 모습이다.

반면 최근 고온에서 활동하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 해충과 거미, 개미, 말벌 등은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갈색날개매미충은 농작물에 알을 낳아 죽게 하거나 수액을 빨아들이는 해충이다. 이달 초에는 나주시 남평읍 지석강변에 있는 한 아파트를 수많은 거미떼가 덮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폭염에 강한 말벌도 번식기(7~8월)를 맞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와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벌집 제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만 광주 1317건, 전남 3245건으로 등 총 4562건에 이른다.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조점래 연구관은 "보통 습하면 농작물에 병이 생기고, 덥고 건조하면 해충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면서 "올 여름에는 유난히 곤충의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과일 훔치고 마트서 고기 '슬쩍' 경기침체에 생계형 범죄 잇따라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고기나 과일 등 먹거리를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초범인데다, 가족과 함께 먹기 위해 남의 음식물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동부경찰은 29일 과일가게 앞에 진열돼 있던 복숭아 1박스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경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내 B(여·70)씨의 과일가게 앞에 진열돼 있던 3만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를 훔쳐 아들의 집으로 가져간 혐의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경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내 B(여·70)씨의 과일가게 앞에 진열돼 있던 3만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를 훔쳐 아들의 집으로 가져간 혐의다.

김씨는 "보통 습하면 농작물에 병이 생기고, 덥고 건조하면 해충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면서 "올 여름에는 유난히 곤충의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에 몰래 담아 가족과 나눠 먹은 혐의다. 무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가족과 반찬을 나눠먹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가족과 함께 먹기 위해 마트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끝낸 식당에 몰래 들어가 허기를 달랠 20대 청년은 구석길 처지에 놓였다.

어린시절 단둥이 살던 어머니가 숨진 뒤 친척집 등을 떠돌며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는 이모(23)씨는 지난 18일 밤 11시경 영업을 끝낸 북구의 모 식당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과10범으로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해온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배가 고프고 잘 곳도 없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훔쳤다"면서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경찰 관계자는 "처지가 불쌍하긴 하지만, 교도소에서 출소(지난 4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선거법 위반' 광산구청장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정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위해 4000명 이상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이를 대가로 기부한 금액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구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黨) 활동일 뿐"이라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다.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마음은 벌써 고향에... 추석을 한달여 앞둔 29일 광주시 광산구 승정역 대합실에 추석연휴 호남선 열차표를 예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배우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구속영장 방침

블랙박스에 내부 녹음 안돼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자신이 태워가던 뮤지컬 단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 구리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7일 밤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도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닛지 쉐린저 SRT 헬트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여·20)씨와 B(33)씨 등 2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황씨는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를 함께 꾸리고 있다. 배우인 차량 동승자들은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이다. /연합뉴스

여수 상포지구 투자자들, 96억 횡령 대표 엄벌 촉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히 의혹이 불거졌던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 투자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여수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청 앞에서 투자 피해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해 구속된 개발회사 대표의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여수시가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아 등기가 늦어지면서 재산

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땅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투자자들은 이자를 갚느라 힘이 드는데 땅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돌산읍에 조성한 상포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S토권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채 지체부진했다.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Y사 대표 김모(48)씨는 수십억원의 회삿돈 9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발송인 불명 택배에 화들짝... 열어보니 동료가 보낸 목공예품

발송인 불명의 택배자를 받은 광주의 한 대학교 여교직원이 '수상한 택배'가 왔다고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29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모 대학 여성 교직원 A씨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택배가 왔다"는 신고를 받고 가로 40cm, 세로 15cm 크기의 택배상자를 경찰지구대로 옮긴 뒤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

라 상자를 열었는데, 글씨가 새겨진 목공예품이 나왔다는 것.

○해당 목공예품은 중국을 여행 중인 A씨의 직장 동료가 보낸 것으로, A씨는 뒤늦게 동료가 택배를 보내겠다고 전화한 사실을 떠올리고는 "깜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상한 택배가 배달된 것으로 착각하고 경각심 차원에서 신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동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8월 개강 선택순 모집 ★

(주)대신경매

토지 기타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물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0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아파트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99평 건2,400평 ▶ 감평가 8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8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9백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32평) ▶ 시세 8억 → 최저가 4억2천	⑦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2526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남동 현대아파트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0평 건237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병동 (2중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95천 → 최저 3억95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00평 건760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5백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아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5평 건45평 ▶ 감평가 3억9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권,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